

신행수첩

성철 큰스님 추모주간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이 열반에 드신지 벌써 1년. 해인사 백련암에는 1주기를 맞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추모법회에 앞서 백련암 문도회는 17일 부터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련암 고심원에서 열리는 이 법회는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란 주제로 매일 수백명의 불자들이 찾아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일주일간 2천여명의 불자들이 기도 동참할 것으로 보여 추모기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추모법회는 24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관련기사 15면)

흥련암 산고골에 낙성

요즈음 서울 삼각산 흥련암 주지 진공스님과 신도들은 26일 법당 낙성식을 앞두고 흥련

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찰 창건 이후 처음으로 제모습을 갖춘 법당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흥련암의 창건은 지난 '68년이었다. 작은 암자로 출발했으나 법당 대지가 국유지여서 그동안 20여차례나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5년 전 정부로부터 사할대지를 매입하고 이번에 법당을 중창했다. 법당 낙성식은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02-912-0048)

진신사리 3과 봉안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평 백운사(주지 법일)에 봉안된다. 이번에 봉안되는 사리는 89년 5월 서경보스님이 태극 학연저 원림사원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부처님 적멸후 8개국으로 나누어져 불자들의 신앙모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부터 중국



개관 6주년인 대구 비슬산 법당사(주지 실상)에 높이 5m(47자) 석조 용두관음보살상이 세워진다.

년 화계 영화를 상징하는 목청재(22일)등이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다. 목동회관은 기념식에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정과 양친구 후천 모범청년 30명에게 총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02-646-0181)

5m 용두관음상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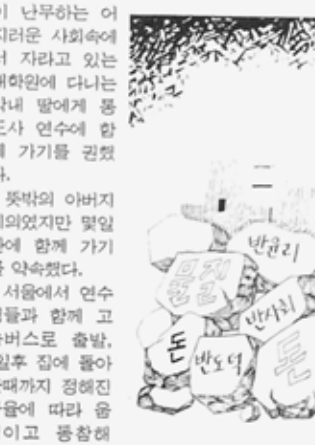
대구 비슬산 법당사(주지 실상)에 높이 5m(47자) 석조 용두관음보살상이 세워진다. 28일 오전 10시에 봉안법회가 열리는 법당사 용두관음보살상은 전복 황등에서 출토된 화강암으로 조성됐다.

한민족에게 관음신앙은 불교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종교를 떠나 어려움이 있을때면 누구나 관세음보살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관세음보살은 이방의 중생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포근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해 왔다. (053-766-3747)



김 태 호 <불교방송 사장>

세월이 어느새 60고개에 접어들었다. 부처님께 회향하는 마음으로 불교방송에서 일한지도 한해가 다가오고 있다. 지경도록 무더웠던 지난여름, 방송사직원들과 함께 풍사 연수에 참가 했었다. 4월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자신은 물론 함께 참가하게된 발에게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주위는 광란에 가까운 극단적 향락주의가 관을 치고 인공과 도덕이 허무해져 대로는 안락하다는 뜻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X세대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사고로, '아라'라는 불도 보지도 못한 말들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막내 딸에게 풍사 연수에 함께 가기를 권했다.



이것을 개정해 야 속신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법행이 세번 재 보류되는 순간, 어쩌면 폐기가 되는 순간, 나는 사회를 보는 국부총리에게 국부위원 자격이 아니라 정각회장이란 불자의 한사람으로 교계의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고 간청하여 통과 시킨 일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국부회의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일

"회향하는 자세로 향기 남겼으면"

합장마저 가르침이 없는 말자식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밤11시 잠자리에 드는 바쁜 일주에서 아침, 저녁예불, 백팔배, 참선, 스님들의 심오한 법문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예불문, 참회문, 부도문, 반야심경도 따라 열람을 했다. 수료하기 전날 일주에서 적멸보궁까지의 '삼보일배'와 합하고 정열한 행사에 참가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은 감격과 행복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마지막 수계받고 서울로 돌아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발송된 연수과정을 털어 놓아 다들 놀라워하는 친구들도 모두 연수에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웃이나 모두가 너그럽게 넘겨주어 물의를 없앴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 깊이 소신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불교방송에 일하게 된후로 많은 사람들로부러 '외의'라는 소리를 들었다. 까닭을 묻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인연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 회향한 것이라고도 했다. 날마다 대서특필하는 반민족적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대명사들을 걸가지마의 다스림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그 부리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할때가 아닌가?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향기나는 도량에서 무명을 밝히려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생활을 잠시나마 지켜보면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앞으로의 생활에 크나큰 지표를 얻었으리라 믿어진다. 이사람은 할애님, 어머님따라 가까운 절에 가고 장인, 장모권위로 힘닿는때까지 불사를

그 원인 치유에 불교(모든 종교)가 앞장 서야 되지 않을까 주장하고 싶다. 우리불교가 '마음만 개치면 된다'는 식의 종래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해결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외치고 싶다. 지난 30년간 국가일, 사회일 보면서 절가 지에 매달려 살지 않았나 물어보면 방송을 통한 인공과 도덕적전에 힘쓰고 있다. 남은 생활이 마음먹은대로 되어 영명한 향기를 남기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2면서 계속>

△구현서 전 의원 △최영철 전 부총리 △정영웅 문체부총무실장 △이영부 문체부총무관 학계

- △삼익상 동국대교수 △김재휘 박사 △하수경 전주대교수 △강신표 한양대교수 △이각범 서울대교수 △권기종 동국대 불교대학장 △이영국 동국대교수 △송석구 동국대부총장 △이종찬 동국대교수 △최순태 원광대교수 △이근호 이대교수 △전재성 한국불교대교수 △박경준 전 역경부장 △연기영 동국대교수 △이정대 연세대교수 △권두환 서울대교수 △동국대 법신스님 △홍덕호 숭실전문대교수 △오현근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유정태 동국대교수 △김철 원광대교수 △민병천 동국대총장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송재준 동국대교수 △송호수 개천대학장 △이태교 한성대교수 △권인범 단국대교수 △고준환 경기대교수 △정재영 성균관대교수 △박영고 고려대교수 △이형호 육사교수 △이철희 육사교수 △황규봉 육사교수 △영준근 동국대교수

- △박용기 한국영상이사장 △한길진 한진영화사대표 △신현식 한국종합전기부사장 △송부민 한라증권업 전무 △안인학 아세아증권고문 △최계열 한국남방개발회장 △김준배 공세당대표 △조병준 한보관광대표 △의의음 해태부사장 △최시호 선경부사장 △박찬효 KTB컨설팅대표 △김재봉 울산회장 △김기탁 삼화실업회장 △형영조 민영통신사장 △박용

욱 이상산업사장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 △한신여 동부산업사장 △이지홍 삼목회중앙회장 △이기림 안국화재상담역 △인우희 전 전기연구소장 △오경의 한국이사회회장 △유종열 효성중공업사장 △서우담 교원출판사대표

인문계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강한필 불교방송전무 △최홍을 경향신문사장 △유복석 경향신문전무 △순광식 문화일보사장 △박노웅 한국경제신문주필 △유인근 한국경제신문주필 △이유근 전 세계일보주필 △공종원 조선일보논설위원 △신종우 중앙일보부국장 △백인호 매일경제TV대표 △박용정 한국경제신문사장 △최호진 매일경제신문고문 △김영하 조선일보논설위원 △이태형 불교텔레비전제작본부장 △홍사성 불교텔레비전제작본부장 △안길모 KTV 전문위원 △해충스님 대한불교신문사장 △채규희 에너지경제신문사장 △배병욱 매일경제신문주필 △정정순 해동불교신문사장 △박상길 법사불교신문회장 △불교신문사장호 린스님 △김재범 그린스카우트 사무국장 △조영호 불교신문업 무국장

법조계 △장원태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박준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전창열 변호사 문화예술계 △김서봉 전미협이사장 △정광수 △김영원 △정찬주 △이은구 △임종민 △황충상 △김익중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장 · 회원

△동국대학교석림동문회회장 이혜훈 △공세당인재 김준배 △월간갈림의어린이대표 김형균 △기아자동차(주)사장 한승준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무원장 유원환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서문각 △불교TV(주)대표이사 김태호 △효성중공업(주)대표이사 유종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민병천 △목동청년소년회관관장 이광우 △한아름선원 삼초의 △군송단장 강남석 박사 △대한불교교사회총회장 최희광 △대한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박탄성 △대안공공사업 부회장 한애상 △한국경제신문사사장 박용성 △대한불교관음종사부총장 이종과 △아성건설(주)대표이사 문원영 △한국아사회 회장 오현태 △현대그룹문화재단 △대한국립대표최고위원 이종한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민주당대표최고위원 이기택 △국회의원 김병명 △민지당불교신도회장 국회의원 박정숙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탄성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사장 장대환 △삼보주지 윤지원 △한진건설 △불교신문사 임직위원 △한국불교기자협회 △경향신문사 사장 최홍을 △삼화그룹 회장 김기탁 △원길개발, 불교출판부 △동국학원 녹원스님 △민지당 사무총장 문정수 △홍익정보엔지니어사 사장 김숙향 △동승고 재외외국인의 △국회의원 김병명 △생방송사장 최승우 △금

호그룹회장 박성용 △불교출판협의회 회장 안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민섭 △불교방송사장 김태호 △호산상사대표이사 강구성 △대우그룹회장 김우중 △의과학사 황용섭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이사장 김대중 △대한불교청년소년교화연합회장 박현성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장 김재홍 △국회의원 이철 △동국대학교수 윤호진 △제주 이선형 △국회의원 구현서 △원광대 교문사회수석비서관 김경남 △기상청최희승 △우리아사상장재연구소장 박희택 △KBS문화사업단 사업이사 손소진 △순혜재단 △남양불교신도회장 임선교 △국회의원 김효일 △삼일회 회장 조경봉 △한국자유기독교교회 회장 김재학 △대한공대학교 교학부총장 류병덕 △매일경제신문사 태병휴 논설주간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장 구본장 △국회의원 이석현 △민주당 최고위원 유준상 △국회의원 박희태 △체신 과학기술위원장 장영우 △이정주 △민주당 육포시지구당 위원장 김홍일 △천도교 중앙총부 총장화 △박수길 △조남도 △이현기 △백성당 △일본 원로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글일부

△조계종 총무원 △화엄승가 장학재단 △한미유선인 장학선도회 △(주)KTB컨설팅 (무순) *지난 14일 행사에서 본지는 하계 여름을 위해 1천5백개의 선물을 준비했으나 부족하여 모든 분께 다 드리지 못한 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화불교대학 해인스님 △해동불교신문사 사장 정경순 △진주산업대학교 박물관장 김기찬 △삼일회 임원일동 △시사저널 신동식 △(주)나라기획 회장 조혜형 △동양불교대학 총장 박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장 서문길 △국회의원 박석우 △관화사가 김경만 △민지당 원내총무 이한동 △국회의원 이철 △동국대학교수 윤호진 △제주 이선형 △국회의원 구현서 △원광대 교문사회수석비서관 김경남 △기상청최희승 △우리아사상장재연구소장 박희택 △KBS문화사업단 사업이사 손소진 △순혜재단 △남양불교신도회장 임선교 △국회의원 김효일 △삼일회 회장 조경봉 △한국자유기독교교회 회장 김재학 △대한공대학교 교학부총장 류병덕 △매일경제신문사 태병휴 논설주간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장 구본장 △국회의원 이석현 △민주당 최고위원 유준상 △국회의원 박희태 △체신 과학기술위원장 장영우 △이정주 △민주당 육포시지구당 위원장 김홍일 △천도교 중앙총부 총장화 △박수길 △조남도 △이현기 △백성당 △일본 원로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글일부

△조계종 총무원 △화엄승가 장학재단 △한미유선인 장학선도회 △(주)KTB컨설팅 (무순) *지난 14일 행사에서 본지는 하계 여름을 위해 1천5백개의 선물을 준비했으나 부족하여 모든 분께 다 드리지 못한 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속의 불교 ②

나라고 믿어온 그 나를 잊을 때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참나가 드러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가.

학력증명서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불교를 배운다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불법을 배울 수가 있다. 누구든지 불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학력 증명서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은 전달하는 것이고 전달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견성성불', '직지인심', '불립문자' 라는 말 밖의 말이 가능한 것이다.

불법은 어렵고 높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훌륭한 것이다.

우영상사 (지류도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 강남빌딩 82호
전화: 266-9328 / 272-9873

● 법어 · 생략어 · 연대어 · 생략어 · (주)연대어인문사